



이스라엘은
미국의 충직한
경비견일까?

8면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 독립!”
구호의 의미 9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다시 전쟁과 혁명의 시대로 6면
가자 전쟁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서방 7면

시진핑-
바이든
정상회담
5면

윤석열의
언론 탄압에
맞서는 기자들
13면

정의당의 위기와
당 지도자들의
기회주의
12면



“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독립하라 팔레스타인

관련 기사 9면

”



8면에 걸쳐 가자 전쟁 소식과 분석,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쟁점을 다룹니다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벌어지는 공핍과 살육

소피 스콰이어

가자 지구의 거리에는 공습과 기아, 지상 침공으로 고통받는 팔레스타인인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주 가자시터를 포위해 가자 지구를 사실상 반으로 갈라 놓았다.

이스라엘은 이번 주 초 다시 통신을 끊었지만, 지난 11월 6일 월요일 더한 층 늘어난 이스라엘 장갑차와 탱크, 불도저가 가자로 진입하는 모습이 위성 사진으로 포착됐다.

이스라엘 국가는 서안 지구도 노리고 있다.

10월 7일부터 11월 6일 월요일까지 이스라엘군은 서안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 최소 154명을 살해했다.

팔레스타인인 자치정부 수감자·출소자 지원부는 지금까지 서안 지구에서 이스라엘에 의해 구금된 팔레스타인인이 2080명이라고 발표했다.

예루살렘 근처에 거주하는 한 팔레스타인인은 <소셜리스트 위커>에 이렇게 전했다.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인들은 서안 지구에도 집중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안 지구에서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공포를 퍼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20개 정도 되는 정착민 집단들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내무부는 자동소총 2만 6000정을 정착민들에게 지급하고 그것을 사용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밤마다 서안 지구의 거의 모든 구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예비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총을 쏘고 사람들을 때리고 모욕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팔레스타인인들



빵과 물을 구하기 위해 몇 시간씩 긴 줄을 서야만 하는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인들

을 때리고 고문하는 영상을 우리에게 보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팔레스타인인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복수 방법입니다.”

그는 서안 지구에서 출근하는 사람이 사실상 없어졌다고 전했다.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학교와 대학은 문을 닫았습니다. 서안 지구에서 이스라엘로 출근하던 사람들은 공격 첫 날부터 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직장이 서안 지구 내에 있는 사람들조차 출근할 수 없습니다.

“검문소는 폐쇄됐습니다. 서안 지구 북부의 여러 구역에서 이스라엘군은 콘크리트 블럭으로 도로를 막았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사람들을 불심 검문해 휴대폰을 검사합니다. 가자 지구에 관한 얘기를 공유하거나 조회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죠. 거기서 걸리면 구타당하고 체포돼 투옥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계획은 서안 지구 팔레

스타인인들의 삶을 더욱 견딜 수 없게 만들고 정착민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이다. 11월 6일 월요일에는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민간 차량을 타고 툴카름 시(市)에 진입해 총을 쏘고 팔레스타인인 최소 네 명을 살해했다.

이스라엘 재무 장관 베잘렐 스모트리치는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 국방 장관 요아브 갈란트에게 서한을 보냈다. 서안 지구의 정착촌 둘레에 “보안 통제 불모지”를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 저항군은 반격하고 있다. 지난 11월 7일 화요일에는 툴카름에서 이스라엘군에 대응 사격을 하기도 했다. 앞서 인용한 예루살렘 인근 거주 팔레스타인인은 이렇게 전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싸우고 있다고 전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하마스는 가자에서 계속 싸우고 있고 잘 조직돼 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저항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 통치 의도를 드러낸 이스라엘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이 가자의 “전반적 안보 책임”을 “무기한”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침공하는 동안과 침공 후에도 가자를 지배하려는 계획을 대략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또, 네타냐후는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지 않는 한 휴전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11월 5일 일요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마흐무드 압바스는 미국 국무 장관 앤터니 블링컨을 만났다. 블링컨은 하마스가 제거된다면 “실질적이고 다시 활력을 얻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 지구를 통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 통치권을 넘겨받는다면 그것은 팔레스타인인과 그들이 보여 준 이스라엘에 맞선 저항을 완전히 배신하는 꼴이 될 것이다. 가자 지구 통치권을 넘겨받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그들이 서안 지구에서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국가와 협력해 팔레스타인인 저항을 분쇄하는 구실을 할 것이다.

불과 지난해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정치 활동가들을 대대적으로 추적해 두 달 동안 팔레스타인인 94명을 체포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앞서 인용한 예루살렘 인근 거주 팔레스타인인은 이렇게 전한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서안 지구에서 전혀 권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여기서 제멋대로 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신경도 쓰지 않아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지도자들과 압바스는 여전히 ‘두 국가’ 방안에 집착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도움으로 군사 점령하고 있는 서안 지구에 대한 장악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서안 지구에서 그토록 인기가 없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가자 지구 주민들을 배신하려는 계획은 그들의 우선순위를 보여 준다.

출처 Sophie Squire, ‘Misery and slaughter in Gaza and the West Bank’ (2023. 11. 07) / 번역 이진화

“함께 싸워 공격을 멈춥시다”

자흐라는 서안 지구 나블루스에 사는 팔레스타인인이다. 그녀는 이스라엘군이 사람들의 휴대폰을 검사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전부 살해”하고 있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두렵다고 <소셜리스트 위커>에 전했다. 그럼에도 그녀는 메시지를 보내 왔다.

“돈, 전기, 식료품, 약품, 물, 자유가 거의 없습니다. 제 아이들은 한 달 동안 집에 갇혀 지내면서 학교도 못 갑니다. 저도 일하러 가지 못해서 돈이 없고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인종 학살이 벌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가자에는 전기, 물, 약품, 식료품이 없고, 병원도 학교도 없고, 잠도

잘 수 없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유혈이 낭자하고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여자들의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전 세계에 계신 여러분, 행진을 조직하고 전쟁을 멈추도록 각 나라 정부들을 압박해 팔레스타인을 도와 주십시오.”

이스라엘군이 패퇴할 수도 있는 걸까?

가자 지구의 참상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스라엘군의 폭격, 치솟는 불길과 연기, 폐허가 된 가자 북부, 수많은 시신과 부상자들, 백기를 들고 피난을 떠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모습이 나온다.

언론은 또한 하마스가 가자 북부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는 이스라엘 측의 발표를 보도한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보도를 보고 이스라엘에 분노하면 서도 절망과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보도에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가자에서는 여전히 격렬한 교전이 이어지고 있다. 교전은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다.

10월 7일 기습 이후 이스라엘이 처절한 응징에 나설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당연히 하마스와 그 외 팔레스타인 저항 단체들은 수년간 그 공격을 준비했다.

하마스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저항군은 가자 지구와 그 주변 지역에 총 연장 500킬로미터에 달하는 지하 터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 비교하자면, 서울 지하철의 총 연장이 343킬로미터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터널 출입구 150여 곳을 공격했다고 한다. 하지만 성일광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정치·경제연구실장에 따르면, 심중팔구는 저항 세력이 준비한 터널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기자의 비교가 아주 적절한 비교는 아닐 테지만 수도권 지하철의 출구도 2800개가 넘는다. 게다가 이스라엘군은 그 노선도를 모른다.

11월 11일 하마스의 군사 기구 알카삼 여단의 군사 대변인은 팔레스타인 전사들이 지금까지 160대의 이스라엘 탱크와 장갑차 등 차량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매복

하마스는 자신의 대원들이 이스라엘 탱크를 상대로 초근접 매복 공격을 하는 영상들을 공개했다. 이런 공격이 가능한 것은 탱크를 호위하는 이스라엘 군 보병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취약점(사실 오랫동안 지적돼 온 것이다)은 심중팔구 이스라엘군이 사망자 수 누적을 기피하는 것과 관련 있을 것이다. 반면, 생사를 건 투쟁을 벌이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은 대담한 공격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공격은 거대한 국제적 항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10월 서울 이태원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전쟁은 죽음을 무릅쓰거나 회피하려는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의해 수행된다. 따라서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대의 명분과 정치도 중요하다. 그리고 그 면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은 현재 명백한 우위에 있다.

물론 수년간의 준비와 숭한 영웅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무력의 우위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군사 전략가 클라우제비츠가 지적했듯이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 그래서 전쟁은 단지 병력의 규모와 무기, 군사 기술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죽음을 무릅쓰거나 피하려는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의해 수행된다. 따라서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대의 명분과 정치도 중요하다.

특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인종 청소에 기초해 있고 서방 제국주의의 후원과 주변 아랍국의 묵인으로 유지되고 있는 시온주의 국가인 만큼, 이스라엘에 맞선 전쟁에서는 언제나 정치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의 명분이라는 면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은 현재 명백한 우위에 있다. 서방과 중동 국가들 안에서 일어난 거대한 연대 시위가 이를 방증한다. 특히, 서방에서는 정부들이 무슬림에 대한 인종

차별을 부추기고 이스라엘 비판을 유대인 배척으로 모는 데 열을 올려 왔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하마스의 공격이 일으킨 파장과 국제적 연대의 물결, 이스라엘의 만행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계속 자극할 것이다.

따라서 하마스가 일련의 전투에서 패배하더라도 ‘하마스 궤멸’이라는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는 달성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서방의 전략가들도 이미 이를 잘 알고 우려하고 있다. 11월 7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스라엘은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 10월 7일의 성공은 미래 세대의 팔레스타인인들을 고무할 것이다. ... 하마스의 목표는 교착 상태에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이다. ... 이런 전략을 추구하려면 강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끈질기기만 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2003년 이라크 전쟁의 경험을 떠올려 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당시 그 전쟁에 반대하는 거대한 국제적 시위가 일어났지만 미국은 이에 아랑곳없이 2003년 3월 20일 이라크 침공을 강행했다.

미군은 순식간에 수도 바그다드를 장악했고 그해 5월 1일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 2세는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에서 “임무 완수,” 즉 승전을 선언했다. 이에 많은 반전 활동가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이 크게 낙담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시의 승전 선언은 선부른 것

임이 드러났다. 얼마 안 가, 점령에 맞선 현지 저항이 거세게 일어났다. 미군은 현지 이라크인들의 끈질긴 저항에 밀려 점령을 유지하는 데 결국 실패했고, 이로 인해 중동은 이후 미국의 발목을 잡는 수렁이 됐다. 2007년 미국의 전략가 조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임무 완수가 임무 파탄이 됐다”고 개탄했다.

현지인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군대가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 주는 더 극명한 사례가 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국제적 지지와 연대를 누리지 못했는데도, 결국 20년간의 전쟁 끝에 미국과 서방의 군대를 패퇴시키는 데 성공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의 혹심한 억압과 분할통치 전략에도 꺾이지 않는 저항 의지를 입증한 바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공격은 앞서 언급했듯 거대한 국제적 항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물론 대의 명분이 자동으로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에 맞선 전쟁에서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이 갖고 있는 근본적 우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팔레스타인 해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당면한 현황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결연하게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이원웅



wspaper.org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및 국내외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소식 등 팔레스타인에 관한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가자 북부 지역에 진입한 이스라엘군

가자 시가전에서 고전하는 이스라엘군

10월 7일 이후 가자 지구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11월 13일 현재 실종자를 빼고도 1만 2200명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가 집계한 우크라이나 전쟁 1년 8개월 동안 사망한 민간인(10월 31일 현재 9900명) 수보다 더 많다.

이스라엘 문화유산부 장관이 가자 지구 핵폭탄 투하를 “가능한 일 중 하나”로 거론했다가 직무정지가 됐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10월 25일까지 가자 지구에 떨어뜨린 폭탄의 파괴력은 미국이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한 핵폭탄을 이미 능가한다.

〈예루살렘 포스트〉 편집인을 지낸 군사 전문가 야코프 카츠는 이스라엘군이 지난 한 달 동안 탄약 2만 300발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이하 아이시스)와 벌인 전쟁 때 썼던 탄약 물량과 비교해 보면 그 파괴력을 어렵잖아 말할 수 있다. 미군과 아이시스 간 공방이 가장 격렬했던 2019년 한 해 미군이 쓴 탄약은 7300발이었다.

이스라엘의 목표가 팔레스타인인 250만 명을 가자 지구에서 쓸어버리는 인종 청소임을 보여 주는 증거다.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공공외교부 장관을 지낸 갈리트 디스텔 아트바르 얀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가자 지구의 괴물들은 남쪽 국경으로 날아가 이집트 영토로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가자 지구를 지워 버려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목표다. 게다가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알카삼 여단(하마스의 군사 조직)의 대변인 아부 오베이다는 11월 9일

현재 이스라엘 군용 차량을 포함해 136대의 장비를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그 며칠 전인 11월 5일에도 하마스는 알카삼 여단 전사들이 가자 지구 북부 셰이크 라드완 지역에서 이스라엘군 차량 10대를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하마스 측의 이런 항전에 부딪히자 이스라엘군은 전차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전투기를 동원한 공습을 강화하는 초토화 작전을 펴고 있다.

당면해서는 이스라엘군의 병력 피해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들을 몰아내려고 이스라엘은 지난 몇 주 동안 엄청난 폭탄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은 가자 시가전에서 고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중동·이슬람센터의 성일광 정치·경제 연구실장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 이스라엘 측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전과를 선전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전쟁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다. … 이스라엘 언론에서도 보도하기를 하마스 지휘부가 여전히 살아 있고 여전히 계속해서 전쟁을 아주 잘 지휘하고 있다.”(YTN, 11월 10일자)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는 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전쟁은 수개월에서 1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 지하터널 공격과 시가전에서 이스라엘군의 고민도 상당히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500킬로미터에 달하는 지하터널에서 어떤 전술을 쓰느냐에 따라 전쟁 기간이 정해질 것이다.”

김인식

확전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미국

미국은 1948년 이래 중동에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지켜 온 사나운(카네 코르소 못지않게 사나운) 경비견이 이란과 일부 아랍국처럼 미국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는 당혹스런 상황이 발생할까 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미국은 “인도주의적 일시 전투 중단”을 제안해, 아랍 국가들을 달래며 자국과 이스라엘을 위해 시간을 버는 한편, 확전을 막기 위해 특수부대·전투기·항공모함·핵잠수함을 동지중해에 배치했다.

“인도주의적 일시 전투 중지” 제안은 바이든 정부가 미국 안팎에서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 지지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제안은 기실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을 “인도주의적”으로 소개하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스라엘군이 가장 무자비하게 가자 지구를 폭격한 것은 미국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이 이스라엘에 “인도주의적 일시 전투 중단”을 요청했을 때였다. 이스라엘군은 자발리아 난민촌, 구급차량 행렬, 암병원, 유엔이 운영하는 학교 등을 극악무도하게 폭격했다.

팔장 끼고 보는

블링컨의 중동 외교가 난관에 봉착하자, 이번에는 중앙정보국(CIA) 국장 윌리엄 번스가 중동으로 날아갔다. 하마스 관련 첩보와 인질 위치 정보 등을 이스라엘에 알려 주는 한편, 가자 전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중동 지도자들과 협의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반발로 “인도주의적 일시 전투 중단” 제안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미 개전 초기에도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가자 지구에 억류돼 있는 인질의 일부 석방을 조건으로 5일간 휴전하자는 하마스의 제안을 거절했음이 최근에 드러났다(〈가디언〉 11월 9일자). 시온주의 국가가 팔레스타인 사람들뿐 아니라 유대인의 목숨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11월 5일 블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가자 전투가 악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매우 힘을 쏟고 있다. 이것이 미국 외교에서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임무다.”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은 무슨 뜻인가?

아랍국들·이란·튀르키예의 지도자들이 말로는 이스라엘 국가를 목청껏 비난하지만, 실제로는 가자 지구에서의 인종 청소를 팔장 끼고 보는 상황을 뜻한다.

지금 이스라엘을 가장 맹비난하는 그지역 정치 지도자는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다. 그는 이스라엘 정부가 “서방의 버릇없는 아이처럼 행동”한다고 비난하며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했다. 그리고 튀르키예를 방문한 블링컨을 만나지 않고 피했다.

결국 블링컨은 튀르키예 외무장관을 만났다. 그런데 이 회담 후에 블링컨은 튀르키예가 이란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중재자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긴 시간 동안 아주 훌륭하고 생산적인” 회의였다고 평했다.

에르도안의 강도 높은 이스라엘 비난은 중재자 구실을 통해 중동에서 튀르키예의 영향력을 더 키우려는 야심을 숨기는 것이다. 또한 튀르키예의 인시를릭 공군 기지에서 최첨단 미군 전투기들이 출격하는 것에 대한 국내적 반대를 의식한 것이기도 하다.

이란도 말로는 “미국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휴전하지 않으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관망세를 취하고 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KBS 중동 특파원에게 이렇게 말했다(11월 9일 자).

“[미국이] 이 지역 무장 단체들이 끼어들지 않게 저희에게 요청했습니다. 참전하지도 않았는데, 미국의 요청은 비논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요청은 저희에게 좀 이상합니다. 이란은 지금까지 이번 전쟁의 일부였던 적이 없습니다.”

헤즈볼라도 아직까지는 가자 전쟁이 하마스의 전쟁이지 헤즈볼라의 전쟁이 아니라고 보는 듯하다. 사무총장 하산 나스랄라는 즉각 확산에 선을 그었다. 그는 “모든 선택지가 고려 대상”이라고 했지만 “일차적 목표”는 가자 지구에서 휴전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중동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다. 13일(현지 시각) 시리아 북동부에 주둔하는 미군과 친이란계 민병대가 24시간 동안 교전을 벌였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17일 이후 시리아와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군을 대상으로 최소 48차례의 공격이 있었고 미군 병사 56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김인식

시진핑-바이든 정상회담

정면 충돌 피하려 하지만 미중 갈등은 악화 중

김영익

이번 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 그리고 11월 15일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한다.

바이든 정부는 “미·중 관계 안정화”가 이번 정상회담의 주목적이라고 발표했다. 양국 간 경제와 통상 관련 쟁점 외에 주요 지정학 문제들도 테이블 위에 올라갈 것이다.

앞서 미·중 재무장관 회담에서 미국 재무장관 재닛 옐런은 양국의 “건강한 경제 관계”를 회복하자고 말했다. 미군 합참의장도 이번에 중국과 군사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런 동향을 보며, 일각에서는 미·중 관계가 (한동안) 안정화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는 듯하다. “1년 만에 이뤄지는 미·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를 안정기에 올려놓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경향신문》)

그러나 (일시적인) 긴장 완화 신호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적 갈등은 여전하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은 여러 쟁점에서 갈등을 빚었다. 10월 17일 미국 상무부는 저사양 인공지능 칩의 대 중국 수출을 불허했다. 사흘 후 중국 정부는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흑연의 수출 통제를 강화해 맞불을 놓았다.

10월 24일 남중국해 상공에서는 미군 B-52 폭격기와 중국군 전투기가 3미터 이내로 근접해 하마터면 충돌할 뻔했다.

그 와중에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은 일본·한국 등 아시아를 순방하며 미국이 팔레스타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도-태평양 쪽에 소홀하지 않음을 보여 주려 했다. 그 직후인 11월 12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일 3국은 다음 달부터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바이든 정부는 주로 중국을 겨냥해 한미일 협력 강화 등 아시아에서 동맹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러시아와 북한도 자극하고 있다. 최근 두 국가가 군사 협력을 발전시키는 까닭이다.

물론 미국과 중국 두 정부는 양측이 정면 충돌하지 않도록 위협을 관리하려 한다. 1년 만에 바이든과 시진핑이



지난달 남중국해 상공에서 미군 B-52 폭격기와 충돌할 뻔한 중국 전투기

다시 만나는 까닭이다.

지금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두 전쟁을 동시에 대처하고 있다. 세계 최강 미국도 두 전쟁을 함께 치르는 것은 쉽지 않다.

팔레스타인의 새로운 전쟁도 미국에 만만찮은 일이지만, 이미 미국이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소모전을 지속하는 데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미국 권력자들은 중국을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로 여겨 왔다.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인도-태평양 방면으로 역량을 집중시키려 애써 왔다.

하지만 동유럽에 이어 중동에서까지 새로 제국주의적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바이든 정부로서는 중국과의 경쟁에 오롯이 집중하기 어려운 난처한 처지에 빠졌다.

이런 상황은 중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신경이 분산된 틈에 여러모로 실익을 도모할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 권력자들의 경계심을 높이며, 어떻게든 만회할 기회를 찾게 만들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바이든과 시진핑은 웃으며 악수하겠지만, 핵심 쟁점들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양국의 제국주의적 갈등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요인들이 변함없다.

세계경제는 2008~2009년 경제 공황

이후 여전히 저성장애다 최근 인플레이션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다. 한때 세계경제 회복의 견인차 구실을 하던 중국도 수출 둔화와 자산 거품 등에 봉착하며 저성장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런 경제적 곤란은 지정학적 갈등과 맞물려서 제국주의간 긴장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다.

미국 권력자들은 (1970년대 이후) 자국의 세계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저하하는 문제를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다. 그 사이에 다른 경쟁자들, 특히 (1990년대 이후) 중국이 미국과의 격차를 줄여 왔다.

그런데 중국과 미국은 경제적으로 긴밀히 얽혀 있다. 그래서 지정학적 갈등과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경제적 상호 의존은 여전하다. 이 점이

양국 정부의 선택들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적·지정학적 부상은 미국의 패권에 가장 큰 위협이다.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은 미국 기업들의 경쟁 우위를 약화시키고 있고, 중국의 군사력 확대는 서태평양에서 미군의 지배력을 위협하고 있다. 외교 대화로는 양국 지배자들의 상호 불신과 적대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까닭이다. 그래서 갈등이 점차 악화되며 전 세계에 그 파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위세가 전만 못하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지역적으로 도전하는 세력들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나토의 동진에 도전한 러시아가 대표적이다. 하마스도 미국의 중동 장악력이 예전만 못함을 이용해 10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러나 미국 권력자들은 두 전쟁 모두에서 쉽게 물러서지 못한다. 미국이 이런 도전을 확실히 제압하지 못하면, 다른 곳(인도-태평양)에서 중국 등 다른 경쟁자들이 자신감을 얻고 미국에 또 다른 심각한 도전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팔레스타인 전쟁들의 전개 과정과 결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화에 직접·간접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점증하는 제국주의간 갈등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도 위기가 분출할 수 있다.

정상회담과 팔레스타인 문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도 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다. 10월 28일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에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과 다른 국제적·지역적 문제들에 관한 상호 이해와 우려”를 논의하자고 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휴전에 반대하고 있음을 비판해 왔다.

그러나 중국이 팔레스타인인들의 무장 저항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자국의 이해관계가 크게 걸린 중동 질서가 그저 ‘안정’되

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 정부는 ‘두 국가 방안’을 지지해 왔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 평화 회의를 열자고 촉구해 왔다.

중동의 ‘안정’을 바라는 중국의 이해관계는 미국과 타협할 여지를 준다. 이런 사정을 알기에, 바이든 정부 관리들은 중국이 이란을 설득해 확전 방지에 기여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시진핑과 바이든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놓고 어떤 논의를 하든 팔레스타인인들의 해방 대의에는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다시 전쟁과 혁명의 시대로

자본주의적 세계화는 그 옹호자들의 약속과 달리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

“에릭 홉스봄은 ‘단기 20세기’를 과거로 취급한다. 글썽, 내가 보기에 그 시대는 전혀 끝나지 않았다.” 뉴욕의 급진적 학자 코리 로빈이 며칠 전 소셜미디어에 쓴 글이다. 나는 그 글을 읽고 번뜩 계시를 받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지극히 옳은 지적이었기 때문이다.

위 인용문에서 로빈이 언급하는 책은 마르크스주의 역사가 에릭 홉스봄이 1994년에 출판한 《극단의 시대: 단기 20세기 역사》(까치, 1997년)이다. 그 책에서 홉스봄은 먼저 그가 “파국의 시대”(1914~1945년)로 일컫는 시기를 다룬다. 그 시기는 제1·2차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대불황, 홀로코스트가 지배하는 시기다.

1945년 이후 세계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라는 틀 속에 육여넣어졌다. 냉전은 홉스봄이 말하는 “황금기”를 열었다. 그 시기는 전후 대호황의 시기였다. 그러나 그 후 새로운 위기들이 “쇄도”했다.

그럼에도 홉스봄은 이렇게 단언했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세계사의 한 시기가 끝나고 새 시기가 시작됐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홉스봄이 말하는 “단기 20세기”는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으로 시작되고 그 혁명으로 등장한 국가[소련]의 붕괴로 끝나는 시기다.

홉스봄이 그 책을 발표했을 당시, 주류에 더 가까운 저자들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유혈낭자하고 일탈적인 1914년 이후의 막간기를 뒤로하고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략 1980년과 2010년 사이에 크게 진척된 경제적 세계화로 평화와 번영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산업을 기반으로 한 유혈낭자한 20세기식 전쟁을 벌이며 엄청난 수의 인명을 희생시키고 있다.

가자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세계적 수준의 위기를 나타낸다. 불길에 휩싸인 가자 지구

이 충돌은 20세기 초에 시작된 유형의 지정학적 경쟁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 줬다. “파국의 시대”가 펼쳐지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한 극우도 기세등등하게 돌아왔다. 가자 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인들을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 전쟁이 실시간으로 전개되고 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20세기 초의 “파국의 시대”도 경제적 세계화 국면에 뒤따른 것이었다. 이 19세기 중반 자본주의 세계는 홉스봄의 이전 저작 《자본의 시대》에 탁월하게 묘사돼 있다. 이 시기는 국제 무역과 국제 금융, 철도·전보·증기선과 같은 신기술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 준 시기였다. 영국의 자유주의적 제국의 주도하에서, 하나로 통합된 세계 자본주의 경제가 출현했다.

세계화

이 경기 확장에서 가장 큰 득을 본 것은 신흥 산업국들, 특히 독일과 미국이었다. 19세기 말 경제와 정치의 불안정이 커지는 가운데 두 국가는 영국의 패권에 도전했다.

그 결과 홉스봄이 말한 “파국의 시대”를 지배한 두 세계대전이 벌어졌다. 이전과 비슷하게도 근래의 세계화 물결도 또 다른 자유주의적 제국의 지도하에서 전개됐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이 영국을 밀어내고 세계 패권 국가 지위를 차지했다.

소련이 붕괴하자 미국은 만만찮은

경쟁자가 없는 우위를 누렸다. 그러나 잠깐 동안만 그랬을 뿐이다. 세계화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의 패권은 상대적으로 쇠락했다. 2000년대에 미국은 두 차례 큰 타격을 입었다. 이라크 전쟁 패배와 2007~2009년의 세계 금융 위기가 그것이다. 선진 자본주의 세계는 만성적인 침체기에 들어섰다.

그러나 이번 세계화에서도 중요한 수혜자가 있었다. 중국이 세계 제조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부상한 것이다. 중국이 공급하는 저렴한 상품이 신자유주의로 악화된 근로 대중의 생활 수준을 그나마 견딜 만하게 만들고 저물가를 유지하는 데 일조한 덕분이었다. 시진핑하에서 중국은 갈수록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은 보호무역 정책을 점점 더 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화가 끝난 것은 아니다. 국제 상품 무역은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에 하락하기 시작했지만, 서비스 무역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세계화는 그 옹호자들이 약속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

20세기 초에 그랬던 것처럼 자본주의적 세계화는 국가간 세력균형을 변화시켰다. 또, 1914년 이전의 대호황기 때 그랬던 것처럼 자본주의적 세계화는 빈부격차를 훨씬 더 벌렸다. 이런 상황은 ‘단기 20세기’ 때와 마찬가지로 전쟁과 혁명을 낳을 것이다.

출처 Alex Callinicos, 'Into a new era of war and revolution' (2023. 11. 7) / 번역 이원웅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paper.org/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wspaper
wspaper_org 노동자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창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2년) (주)디엔코리아 현재호 등록번호: 서울다08179(주2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ISSN 2005-8217



45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가자 전쟁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서방

서방 강대국들은 장악력을 잃을 수도 있지만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가자 지구 공격은 단지 중동 수준의 지역적 위기가 아니다. 그것은 세계적 수준에서 심화되는 충돌을 더 심화시키는 세계적 위기다. 이 점을 지적하는 설득력 있는 글이 시사잡지 《포린 폴리시》에 실렸다.

《포린 폴리시》는 대개 미국이 자신의 세계 패권에 대한 여러 도전을 물리치려면 어떤 전략을 펴야 하는지를 두고 정책 지식인들이 논쟁을 벌이는 장이다.

내가 언급하려는 글의 저자인 스티븐 월트는 하버드 대학 교수다. 미국의 대외 정책을 둘러싼 내부 논의를 아는 사람인 것이다. 그러나 월트는 미국 대외 정책의 오랜 비판자이기도 했다. 월트는 국제관계학이라는 학문 분야에서 현실주의 학파에 속하는 인물이다.

현실주의 학파 지지자들은 국제 시스템을 무정부적 정치 질서로 본다. 그 안에서 개별 국가들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 이익에 부합할 때만 서로 협력한다고 본다.

저스틴 로젠버그나 나 같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오랫동안 지적했듯이, 현실주의 학파는 이 국가간 경쟁의 근원이 국제적 자본 축적 과정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 물론 현실주의를 지지한다고 해서 꼭 전쟁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월트는 더 유명한 현실주의 학자인 존 미어샤이머와 함께 2003년 조지 W 부시 정부의 이라크 침공 계획을 비판하는 글을 공저했다. 두 사람은 미국의 이스라엘 지지가 정치권을 향한 친이שראל 로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내가 보기에는 부정확한 관점의) 책을 쓰기도 했다.

대리전

최근 《포린 폴리시》 글에서 월트는 “미국과 나토의 동맹국들은 ...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맞선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월트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도 이미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실패해 “전쟁이 잘 풀리지 않고 있었



가자 전쟁은 서방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서방 강대국들의 지배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다”고 지적한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사실상 경제 전쟁”을 벌이면서, 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연합·바레인이 체결한 아브라함 협정을 사우디아라비아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고 월트는 지적한다.

또, 가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레바논과 이란이 개입하는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전쟁은 이미 “미국이 주도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 관계 정상화 노력에 어긋장을 놓았다”고 월트는 지적한다.

이는 미국 정부가 자국 패권의 최대 경쟁자인 중국을 상대하는 데 드는 주의력과 자원을 분산시킨다고 월트는 지적한다.

게다가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충돌은 우크라이나에게 재앙이다.” 미국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우파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군사 지원과 재정 지원을 지속하는 것에 이미 회의적이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이제 가자 지구를 초토화하는 데 쓸 포탄을 미국에게서 공급받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경쟁하게 될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에게도 나쁜 일이다.” 많은 회원국들이 이스라엘을 무조건 지지하는 독일의 노력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월트는 이렇게 지적한다. “이는 서방에게 나쁜 일이다. 그러

나 러시아와 중국에게는 이 모든 것이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미국을 우크라이나나 동아시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모두 바람직한 것이다. 게다가 미국의 피해가 누적되는 것을 그저 지켜보기만 해도 금상첨화다. ...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또한 미국 주도 체제에 대해 다극적 세계 질서가 필요하다는 러시아 정부와 중국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또 다른 편리한 근거를 제공한다.”

균형추

이미 개발도상국·빈국들은, 미국이 자신들을 러시아와 중국에 맞서도록 결집시키려는 노력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만큼 “그 나라들은 규범과 규칙, 인권에 관해 우리(미국) — 역사가 떠드는 말에 조금치도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을 미국에 대항하는 균형추로 보기 시작한다 해도 놀라지 마라.”

흥미로운 것은 미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지금 사태가 얼마나 자신들에게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지 거의 모르는 눈치라는 것이다.

미국 국무장관 앤서니 블링컨은 지난주 G7 외무장관 회담에 참가한 소감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G7은 그 어느 때보다 단결해 있다.”

G7은 스스로를 “지도적인 산업국들”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중국이 최대 제조업 생산국인 지금 그런 얘기는 매우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G7이 말하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는 지배력을 유지하려고 분투하는 서방 제국주의 블록일 뿐이라는 것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출처 Alex Callinicos, 'West fears outcome of the war in Gaza' (2023. 11. 13) / 번역 이원웅

현 팔레스타인 저항의 쟁점들을 다룬

노동자연대 TV 영상 모음

온라인 토론회 영상,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현장 영상들을 만나 보세요!



bit.ly/477esMy

이스라엘은 미국의 충직한 경비견일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굳건하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매끄러운 것은 아니라고 **다라 커미스키**가 설명한다.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미국 제국주의의 적성국들이 '질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공격하는 경비견 노릇을 해 왔다. 많은 경우에 이는 은폐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이런 진실이 드러나기도 한다.

2024년 미국 대선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얼마 전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보루다. ... 중동에 배치해 둔 항공모함이나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이스라엘은 우리의 가장 오랜 동맹국이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다음 발언도 이스라엘과의 그런 관계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만약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이해관계를 확실히 지키기 위해 비슷한 것을 하나 만들어 내야 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미국 제국주의의 경비견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동반자 관계를 가리켜 이스라엘 신문 〈하레츠〉는 1951년에 다음과 같이 썼다. "이스라엘을 강화하는 것은 서방 열강이 중동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스라엘은 경비견이 될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서방 열강이 눈을 감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 생긴다면, 이스라엘은 서방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무례를 범한 이웃 국가들을 응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1967년 요르단·이집트·시리아를 상대로 '6일 전쟁'을 일으켜 자신의 유용성을 미국에 입증했다. 그 전쟁 이후 미국의 대(對)이스라엘 원조가 급격하게 늘었다.

1946~2016년 동안 미국은 이 테러 국가에 무려 1000억 파운드(약 160조 원)를 제공했다. 국제정책센터(CIP) 산하



이스라엘의 군대와 경제 모두 미국의 지원이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다

‘안보 지원 모니터’의 보고서를 보면, 이스라엘은 2000년 이후 22년 동안 미국 무기를 92억 달러(약 9조 원) 구입했다. 미국 군수산업은 이스라엘의 살인 기구에 장비를 제공한다.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해마다 38억 달러씩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경제는 붕괴할 것이다.

바이든은 지난 50년 동안 의회에서 이스라엘을 헌신적으로 옹호해 왔다. 그 대가로 바이든은 미국 정가의 친이스라엘 로비 세력한테 선거 기부금과 연설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고 미국이 돈과 로비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그런 함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국가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진정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중요한 제국주의 동맹국 중 하나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단독 행동

지난 50년간 이스라엘 지지는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지만, 그렇다고 미국-이스라엘 관계



아이들을 죽이고 있는 이스라엘과 미국이야말로 "테러리스트"다

가 마냥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미국 정부는 때때로 자신의 경비견을 자제시키려 하는데, 그럴 때면 종종 이스라엘은 단독으로 치고 나간다. 2017년에 미국의 전직 국무장관이었던 존 케리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 프로그램을 비판할 수밖에 없었다. 정착촌 건설은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2021년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 국가에 자제하라고 촉구한 것도 미국이었다.

11월 둘째 주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공격에서 4시간씩 교전을 중지하기로 양보한 것도 미국 당국자들의 압력 때문이었다.

또한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장기 점령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11월 7일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굳건한 동맹 관계는 변함없지만, 두 국가는 각기 다른 목적을 추구한다. 미국은 중동에서 자신의 제국주의적 이해관계를 이스라엘이 방

어해 주기를 바라지만, 이스라엘의 목적은 팔레스타인에서 시온주의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것이다. 이 두 목적이 언제나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시위를 통해, 바이든과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사이의 관계와 그것이 뒷받침하는 팔레스타인 억압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11월 초 영국에서는 팔레스타인에 연대를 표하기 위해 전례 없이 30만 명이 행진했다.[11월 둘째 주말에는 정부의 시위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행진했다. 주최 측은 80만~100만 명이 이날 시위에 참가해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역자

더 많은 시위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키우기 위해 필요하고, 또 미국-이스라엘 관계 청산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출처 Dáire Cumiskey, 'Is Israel the loyal watchdog of US imperialism?' (2023.11.12) / 번역 김중환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From the River to the Sea)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 독립!”

분노의 외침이자 진정한 해방 요구를 기꺼이 공유하자

“From the River to the Sea, Palestine will be free(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이여 독립하라!)”

반세기 넘게 국제적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널리 외쳐 온 이 구호가 최근 서구 정부들의 탄압 대상이 돼 있다.

11월 7일 미국 하원은 이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 영상을 'X'(옛 트위터)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팔레스타인계 여성 하원의원 라시다 틀라입에 대한 징계를 가결했다. 이 구호가 “유대인 배척”이라는 것이 징계 사유였다.

프랑스에서는 이 구호를 외쳐 “이스라엘 국가를 모독”하면 최대 7만 5000유로(약 1억 원)의 벌금형 혹은 2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상원에 발의됐다.

영국 보수당 정부의 전 내무장관 수엘라 브래버먼은 이 구호가 “유대인 배척 담론의 상징”이라고 규정하고는, “혐오 시위대”의 이 구호를 금지하겠다고 협박했다.(브래버먼은 경찰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무르게 대처했다고 불평한 후 11월 13일 장관직에서 해임됐다.)

그러나 이 구호가 유대인 배척이라는 주장은 억지다.

유대인 배척은 유대인에 관한 (허구적) 편견에 기초해 유대인 집단 전체를 공격하는 극우 이데올로기로, 이스라엘 비판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유대인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 이 구호를 외치며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에 동참하는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배척하는 것이라는 말인가?

이스라엘 비판을 유대인 배척과 등치시키는 비방의 진정한 목적은 이스라엘 비판의 정당성을 떨어뜨리고 팔레스타인 연대에 나서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다.(관련 기사 본지 478호 '이스라엘 비판이 유대인 혐오인가?')

이 구호에는 팔레스타인 해방의 전망이 포함돼 있다.

이 구호는 요르단강 서안에서 동지중해 해안까지(“강에서 바다까지”) 역사적 팔레스타인 땅 전체에 단일한 세속 민주 국가를 수립하자는 요구다. 그런 국가하에서는 유대인이든, 무슬림이든, 그리스도교인이든,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평화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시온주의 국가 이스라엘은 사라져야 한다. 이스라엘은 폭력을 동원해 원주민을 쫓아내고 수립된 정착



이스라엘 국가를 폐지하고, 팔레스타인인과 유대인 등이 공존하는 세속 민주 국가를 세워야 한다. 10월 13일 미국 오하이오주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

민 식민 국가다. 팔레스타인인들을 몰살하거나 모두 추방할 때까지 끝없는 전쟁을 벌이는 것은 유대인만의 배타적 민족 국가를 표방하는 이스라엘의 존재 조건이다.

이것이 바로 75년 전인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때 일어났던 일(‘나크바’, 즉 대재앙)이며, 지금 또다시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벌이려 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국가를 폐지하고 단일한 세속 민주 국가를 수립하는 것, 쫓겨난 모두가 돌아와 평화 공존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것은 해방의 전제 조건이다.

서구 정치인들이 립서비스처럼 들먹이는 이른바 “두 국가 해법”은 전혀 해법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독립 국가를 진정으로 용인하리라는 생각은 공상에 불과하다.

서구 정치인들은 1993년 오슬로 협정 덕에 동(東)예루살렘, 서안 지구,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국가가 수립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른바 이 “평화 프로세스”야말로 “두 국가 해법”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이스라엘은 협정 체결 이후 30년 동안에도 줄곧 팔레스타인인들의 땅을 더 빼앗아 왔다. 미국의 지지·지원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의 이런 행동을 ‘국제 사회’는 전혀 저지하지 못했다(않았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오슬로 협정으로 수립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를 이용해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감시·통

제해 왔다.

따라서 애초에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이 제시했던 전망, 즉 이스라엘 국가를 해체하고 단일한 세속 민주 국가를 수립한다는 전망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하게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사기극에 불과한 ‘두 국가 공존’ 협상에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이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항에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을 방해하는 일이다.

더 원대한 전망

시온주의를 분쇄하려면 혁명이 필요하다. 팔레스타인인들은 지금 영웅적으로 저항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스라엘을 맹견 경비견으로 둔 미국 제국주의의 세력에 맞서 이길 수 없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해방되려면 이 지역 아랍 정권들에 맞서, 특히 역내 최대 산업국이자 친미 동맹인 이집트에서 봉기가 분출해야 한다(관련 기사 본지 51호 ‘팔레스타인 해방의 길은 카이로로 통한다’).

이 아랍 정권들은 말로는 팔레스타인

인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팔레스타인 해방의 걸림돌이다. 이들은 기껏해야 팔레스타인 문제를 오불관언 하고, 심지어 이스라엘과 돈독히 지내려 하며 제국주의에 협조하기도 한다.

이들 모두에 맞선 봉기야말로 이스라엘과 미국 제국주의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다. 1987년부터 5년에 걸친 ‘인티파다’ 대중 저항, 2011년부터 2년여 동안 아랍 세계를 뒤흔든 혁명 물결 ‘아랍의 봄’은 제국주의자들이 아랍 지역에서 구축한 ‘질서’가 어떻게 뒤흔들릴 수 있는지 활짝 보여 줬다.

아랍 지역에 살지 않는 우리에게도 과제가 있다.

현재 국면의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는 바로 세계적으로 분출한 국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다. 이 운동은 팔레스타인과 중동 민중을 고무하고 있으며, 양적·질적으로 더 성장하면 제국주의 강대국들을 정치적으로 더 압박할 수 있다.

이 운동이 이스라엘을 패퇴시킬 때까지 계속 전진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 이스라엘과 이를 후원하는 서방 제국주의가 패배하면, 우리 모두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맞선 다른 전투들의 전진도 고무할 것이다.

우리는 그 모든 전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을 체제에 맞선 다른 전투들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강에서 바다까지 팔레스타인 해방”이라는 구호는 팔레스타인 해방 운동의 대의와 진정한 해법을 집약한 구호이자, 운동을 정치적으로 분열·마비시키려 드는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항의의 외침이다. 이 구호가 세계 곳곳에서 그렇듯 한국에서도 계속 울려 퍼져야 하는 이유다.

김준호

이 기사는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크 워커>의 사설 ‘The right don't get to say what our Palestine slogans mean’을 많이 참고해 썼다.

팔레스타인의 저항을 아는 데 도움이 될 책

강탈국가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강탈의 역사
존 로즈 지음, 이정구 옮김, 책갈피, 184쪽, 9,000원

팔레스타인의 저항 - 이스라엘과 제국주의에 맞서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필립 마플릿 지음, 이정구 옮김, 책갈피, 440쪽, 20,000원

팔레스타인 비극사 - 1948, 이스라엘의 탄생과 종족청소
일란 파페 지음, 유강은 옮김, 열린책들, 568쪽, 25,000원 (절판)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 - 정착민 식민주의와 저항의 역사, 1917-2017
라시드 할리디 지음, 유강은 옮김, 열린책들, 448쪽, 25,000원



근로시간 개편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노동시간 유연화를 획책하다

윤석열 정부가 11월 13일에 노동시간 개악 계획을 수정 발표했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기세 등등하게 발표한 이른바 “주 69시간제”는 광범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은 유체이탈 화법을 쓰며 보완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큰 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며 시간 벌기에 나섰고, 이번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노동시간 개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책 방향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의 생산, 정비 등의 직종에서 먼저 노동시간 유연화를 시행하되, 지난 개악안과 달리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개악안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탓인지, 윤석열 정부는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정”(1주 60시간이 유력하다)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보완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기간을 늘리는 것은 고수하고 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기간을 늘려 특정 기간 장시간 노동시간을 허용하려는 것은 노동시간 유연화와 관련이 있다.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특정 시기에 압축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대한 반감이 크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가적인 소득을 위해 연장근로를 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동자 58.3퍼센트가 반대했다! 연장근로 의향이 있다는 노동자들



광범한 반발에 부딪히자, 윤석열은 노동시간 연장 꿈수안을 내놓았다

조차 55.7퍼센트는 최대 주간 근로시간은 현행 주52시간 한도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시행한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 노동자들이 원하는 노동시간은 평균 36.7시간이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장시간 근로 발생의 가장 큰 이유로 “고질적인 인력난”을 꼽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고용 확대와 인력 충원이 아니라 노동시간 유연화로 오히려 더 긴 노동시간을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일부 업종과 직종?

고용노동부는 정책 방향에서 노동시간 유연화 개악을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 시도하겠다고 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생산, 정비직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암시한다.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 노동시간 유연화를 시작하겠다는 것은 지난 개악안에

대한 광범한 반발을 염두에 둔 꿈수다.

그런데 제조업과 건설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고용 규모를 고려할 때 일부 업종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

제조업은 GDP의 25퍼센트, 전체 취업자의 15.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건설업의 취업 비중은 7.7퍼센트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근로시간 산업별 비교에서 장시간 노동이 유지돼 온 업종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주요 업종에서 노동시간 유연화를 도입한다면 이는 다른 업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업종과 직종별 노동시간 유연화 도입 시도는 노동자들을 업종과 직종으로 분열시켜 반대를 약화시키려는 수작이다. 이미 지난 3월 개악안에서 정부는 “근로자 대표”에 관한 법규정도 입법발의 했는데, 한 사업장 안에서도 근무형태나 직무 특성별로 부분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과반수 노동조합이 노동시간 유연화 개악에 반대

하더라도, 특정 부문·사업부별로 결정을 달리할 수 있다.

물론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계획 추진이 순탄한 상황은 아니다.

무엇보다 노동시간 개악안에 대한 반발이 여전히 상당하다. 고용노동부가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민주당총, 한국노총, 정의당, 진보당 등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조차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포기해라”는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비판을 무마하려고 지난 개악안과 달리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대표를 불러들여 협의하는 모양새를 갖춰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아마도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대화 테이블을 복원해 노동시간 유연화 개악의 불씨를 유지하면서 내년 총선 전후 입법 시도를 추진해 보겠다는 심산인 듯하다.

이런 점에서 개악안 발표 직후 일사천리로 대통령실이 한국노총에 사회적 대화 테이블 복귀를 요청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노총 지도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천명한 것은 윤석열의 개악 파트너 찾기에 협조하는 노동자 배신 행위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3조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복귀는 윤석열의 기만 살려 주는 꼴이다.

윤석열과의 대화를 통해 개혁을 성취/방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김광일



경기도청 유튜브 '야근괴담, 사무실에서 방심하지 마'

건강보험 고객센터 파업을 지지하는 정규직의 목소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고객센터 파업이 11월 14일 현재 14일 차를 맞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은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고객센터를 건보공단의 소속기관으로 전환하고 현재 일하는 상담사들을 전원 고용하라는 것)과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11월 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2년 넘게 소속기관 전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건보공단은 파업 2주가 넘도록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며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다.

건보공단 측은 대화를 하자더니, 정작 파업을 앞둔 10월 30일 저녁에 공단 본사 입구에 차벽과 방호벽을 세웠다.

심지어 파업 돌입 후에는 공단 본부 앞 농성장 설치가 불법이라며 조합원 400여 명을 공동주거침입, 업무 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건강보험 정규직 노조 집행부는 비정규직인 고객센터 노동자 파업에 대해 문제적인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규직 노조 집행부는 명시적으로 파업과 요구를 반대하진 않았지만, 마치 고객센터 파업이 정규직에게 피해를 주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들 간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인 양 묘사했다. 완전히 부적절한 입장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정규직 노조 웹사이트 게시판을 보면, 고객센터 파업을 지지하는 정규직 노동자들도 적잖다.

정규직 노조 집행부와 달리 이들은 고객센터 노동자 파업의 정당성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공단이 고객센터의 원청이면 고객센터 노동자의 사용자인기도 합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공단에 와서 투쟁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측은 원청으로서 문제 해결 노력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오로지 고객센터 노동자들에게 강경 대응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사측이 하는 행동과 [고객센터] 파업에 관한 여러 반응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우리[정규직 노동자]가 겪어야 할 투쟁에서 설득력을 가지고 연대가 가능할지 걱정이 앞서네요.”



11월 10일 '생활임금 쟁취! 노동조건 개선! 해고 없는 전환 쟁취!'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대규지회 파업 승리 결의대회

또, 공동의 사용자에 맞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연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노동조합의 힘은 연대에서 나옵니다. 우리 조직이 비록 다른 조직에 비해서 [규모가] 크다고 하지만, 개별 노조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전 지금 고객센터 파업이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우리는 한 배를 타고 가는 동료입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요구와 파업을 비난하는 입장은]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부메랑이 되어 노-노 갈등의 원인이 될 겁니다.”

“한 배를 탄 동료”

“고객센터노조의 공단 점거는 그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정당하고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 노조도 투쟁 속에서 사측과 갈등이나 분쟁이 해결 안 되면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공단 본부 점거 투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경험으로 보면 노조가 공단 본부 점거 투쟁을 할 때, 비노(조원)들은 같은 노동자의 편이 아닌 구사대가 되어 노동자를 탄압하는 앞잡이가 되었고, 그때의 울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 같은 노동자의 투쟁을 탄압하는 구사대가 되지는 맙시다.”

“본사 점거 등은 우리[정규직] 노조도 이전부터 필요에 따라 해 왔던 행동이므로, 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지어 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투쟁할 때 스스로 발목을 잡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지

금 우리가 누리는 단(체)협(약)은 이사장실 점거와 같은, 사측 입장에서선 ‘폭력 행위’로 만들어졌(습)니다. … 사측이 탄압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향후 있을 우리 파업에도 안 좋은 선례가 될 겁니다. … 엄밀히 따져서 하청 노동이 공단 [정규직] 노동자와 무관한 일이라면 고객센터 파업에 따른 추가 노동을 공단 직원에게 부가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응원은 고객센터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특히 정규직 노조 집행부가 비정규직 파업을 외면하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파업을 지지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존재는 빛과 소금이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투쟁을 지지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길 바란다.

신정환

2023년

노동자연대 송년의 밤 초대합니다

일시 2023년 11월 24일(금) 저녁 6시 ~ 11시

장소 서울 을지로 태성골뱅이신사 본점 3층

(서울 중구 을지로3길 35. 을지로입구역 1번 출구)



지도 보기



후원계좌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문의 02-2271-2395 | mail@workerssolidarity.org

정의당의 위기와 당 지도자들의 기회주의

정의당이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어 내년 총선에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내 동요와 갈등은 끝나지 않은 듯하다.

정의당은 11월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선거연합정당에 부합하는 당명 변경 등 재창당을 하고, 정의당뿐 아니라 민주노총 등 노동계,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지역 풀뿌리 조직 등 제3의 정치세력도 그 당의 비례와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의당 내에서는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 안, 금태섭 신당과 공조하는 3지대 신당 안, 민주노총과 좌파 4당을 포함하는 선거연합정당 안 등을 놓고 갈등이 있었다.

이중 3지대 신당론은 장혜영·류호정 현직 의원들(세번째 권력)과 박원석·김종대 전 의원들(대안신당 당원모임) 등 전현직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다.

정의당의 위기는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 성적이 아주 저조했고 그 뒤에도 세력과 지지율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데서 비롯한다. 선거 성적을 제일 가치로 추구하다 보니(선거주의), 전현직 의원들을 비롯한 인지도 높은 인사들의 원심력이 커졌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방안 중 어느 것도 선거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진보당·노동당·녹색당과의 선거 연대 또는 연합을 전현직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것에도 선거 실적 문제가 있다. 또, 자신에게 비례 앞 순번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그들 자신의 실천이 점점 좌파적 원칙이나 노동자 투쟁에서 멀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준석 신당?

3지대 신당파들이 처음부터 관심을 보인 금태섭은 삼성전자 임원 출신 양향자와 소통하고, 심지어 이준석 신당과의 공조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그런데도 3지대 신당파의 류호정 의원은 이준석 신당과도 함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나머지는 명확하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는 것이다. 이준석은 이미 박근혜 탄핵 때 바른정당으로 분당했다가 다시 국민의힘으로 복귀한 우익 정치인이다. 그가 신당 창당에 나선 것은 국민의힘 지도부인 친윤계가 자신에게 공천을 주지 않을 게 뻔



정치적 방향 감각을 상실한 듯한 노선 논쟁 끝에 비대위원장을 선임했으나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

정의당 지도자들의 선거 제일 중시에서 기인하는 기회주의적 처신은 당의 진보 성향 지지층에게 정치적 혼란과 사기 저하를 가져다 줄 뿐이다.

해졌기 때문이다.

정치적 방향 감각을 상실한 듯한 노선 논쟁 와중에 참여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후 지도부 사퇴론이 불거졌다.

결국 이정미 지도부는 당내 좌파 '전환'의 의견을 수용해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 정당들과의 선거 연대를 모색하는 선거연합정당 추진을 결정하고, 그 추진 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넘긴 뒤 사퇴했다.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비대위를 구성한 사람은 이정미 전 대표와 같은 정치 경향에 속하는 배진교 원내대표다. 배 원내대표는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오래 지낸 김준우 변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주장했다.

김준우 변호사는 11월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

의당의 선거연합정당 방안은 정의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가치에 기초한 선거연합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례 1, 2번이 기득권이잖아요. 그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얘기하는 게 선거연합정당의 취지 중 하나인 거지요.”

그런데 김준우 변호사는 제3지대 신당 주창파와도 계속 협력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전국위 결정 취지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

“[전국위의 결정에 해당하는 세력은] 기본적으로 진보정당, 조직노동, 제3지대 이렇게 세 개거든요. 그런데 제3지대가 누구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사실 1번은 풀뿌리 지역정치세력에서 지역정당네트워크라는 분들을 처음 만날 거고요. 그리고 ‘등’이 있어요. 이 ‘등’이 무한히 열리잖아요. ... 열어 놓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무원칙·무책임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신당, 금태섭 신당 등과 연대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다. 김준우 변호사는 비대위원장 내정 직후 장혜영 의원과 통화했는데, 장 위원장으로부터 “잘된 인선”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비대위원장은 정의당 당권파가 취해온 기회주의적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전환’ 그룹은 김준우 비대위원장의 인터뷰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미 대표는 3지대 신당파들을 따르지 않았지만, 세번째권력 측 의원들(류호정·장혜영)이 당의 진보개혁 염원 약속에 역행하는 연행을 지속하는데도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경고하지 않았다.

그들의 반대를 거슬러 진보연합 성격의 선거연합정당 추진을 결정하고도, 3지대론에 대한 ‘징계는 없다’면서 오히려 그들을 감쌌다. 무원칙한 비밀관성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심상정 의원은 당내 분란 내내 무책임하게도 침묵을 지켰다.

그런데 3지대 신당파에 있는 전현직 의원들 모두 심 의원이 영입하거나 그가 제시한 기조 덕에 특혜를 받아 의원이 된 이들이다. 전자에는 박원석, 김종대 의원이 해당되고, 후자에는 청년 등 가중치를 받아 비례 앞 순번을 받았던 장혜영, 류호정 의원이 해당된다.

그래서 제3지대파의 이정미 사퇴론 뒤에 심 의원이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정의당 지도자들의 선거 제일 중시에서 기인하는 기회주의적 처신은 당의 진보 성향 지지층에게 정치적 혼란과 사기 저하를 가져다 줄 뿐이다.

김문성

탄압에도 정부 비판 보도 이어가는 용감한 기자들

윤석열 정부의 집요한 언론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9월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대대적으로 구성했다. 이후 <뉴스타파>와 JTBC, <리포액트>의 기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최근엔 <경향신문>, <뉴스버스> 전현직 기자들까지 압수수색 했다.

수사 대상인 언론사는 모두 5곳이나 된다. 심지어 기자 개인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지난 대선 기간에 당시 대선 후보인 윤석열이 2011년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정 대출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의혹의 요점은 이렇다: 윤석열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부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중 일부를 대충 무마해 줬다. 그 돈이 대장동 투자의 종잣돈이 됐다. 박영수는 검찰 특수부에서 윤석열의 직계 상관이었다.

지금 검찰의 수사는 최고 권력자에게 불리한 의혹을 대선 국면에서 보도한 기자들을 못살게 구는 전형적인 보복 수사이다. 멸절한 의혹 탐사 보도들을 반박 근거 제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가짜뉴스”로 매도하고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정치권력의 부당한 언론 탄압이자 언론 전반에 대한 협박이다.

기자들은 각자 제보나 여러 취재와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의혹을 뒷받침했다. 김만배 대화 녹취록, 남육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정영학 녹취록, 대장동 개발 초기 시행사 관계자 인터뷰와 검찰공소장 등.

검찰은 이 모든 보도가 의도적·악의적인 허위이고 배후 세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작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피해자 윤석열의 명예훼손”이다. <뉴스타파>는 배임수재 혐의도 받고 있다. 본지 기사 ‘윤석열 정부의 <뉴스타파> 등 언론 탄압을 보아 넘기지 말라’ 참고.)

사실 고위공직자의 직무는 공적 관심사(공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루는 언론 보도가 명예훼손 범죄가 될 가능성은 작다. 법원은 그간 보도에 설사 허위사실이 일부 있더라도 의혹을 품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고 공익에 부합할 때는 그것을 폭넓게 인정해 왔다.

윤석열 정부의 뉴스타파 탄압

[난중칼럼] 가짜뉴스라고? 옥석을 가려보자

2023.11.10

[난중칼럼] '인덱싱 이론'과 검-정-언

2023.10.26

[특집] 윤석열 정권은 왜 뉴스타파를 죽이려 드는가: 4부 검사 비리를 폭로하다

2023.10.20

[특집] 윤석열 정권은 왜 뉴스타파를 죽이려 드는가: 3부 '역린'을 건드리다

2023.10.11

[특집] 윤석열 정권은 왜 뉴스타파를 죽이려 드는가: 2부 검사 윤석열의 치부를 폭로하다

2023.09.27

[특집] 윤석열 정권은 왜 뉴스타파를 죽이려 드는가: 1부 검찰, 독립언론을 침탈하다

2023.09.19

초유의 뉴스타파 압수수색 "역사에 남을 치욕적 언론 현장"

2023.09.14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독립언론 침탈' 폭거를 규탄하며 어떤 탄압에도 권력감시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3.09.14

윤석열은 지금 온갖 부패 의혹의 대상이 돼 있다 정부의 언론 탄압 규탄하는 <뉴스타파>의 보도들

2008년 이명박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정운천, 2014년 대통령 박근혜 등 권력자들을 피해자로 한 언론 대상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의자가 된 언론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대통령을 피해자로 하는 명예훼손 수사를 벌이는 이유는 수사 과정에서 정부 비판 언론사와 기자들을 압박하고 길들이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효과를 일부 내고 있다. 이번 수사가 시작된 직후 JTBC는 비굴하게도 자사 보도가 “왜곡보도”라며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했다. JTBC는 진작에 보도 논조가 바뀌었고, 그래서 봉지욱 기자가 JTBC에서 퇴사해 <뉴스타파>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압수수색

반면 다른 언론사들은 탄압에 굴하지 않고 있다.

<뉴스타파>와 <뉴스버스>는 이번 압수수색을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고 맞설 것임을 밝혔다. <경향신문>도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공식 입장으로 반박하며 “앞으로도 권력 감시·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거주지를 압수수색 당한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봉지욱 기자도 관련 추가 탐사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이전에도 윤석열의 눈엣가시가 되는 만만찮은 보도를 해 왔다.

봉지욱 기자는 2년 넘게 대장동 사건

을 취재하며, 1300쪽이나 되는 ‘정영학 녹취록’을 분석·공개하고 ‘50억 클럽’(대장동 사건과 연관된 고위 판사와 검찰, 언론사 사주 등) 수사를 촉구해 왔다. 그는 압수수색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남겼다. “죽을 때까지 추적해서 만천하에 그 실체를 까발리겠습니다.”

한상진 기자는 2019년에도 윤석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이 된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개입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이다. 전 용산세무서장 윤우진은 윤석열의 검찰 내 최측근이었던 윤대진(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당시 윤석열은 청문회에서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일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지만 한 기자가 윤석열 자신의 육성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큰 망신을 당했다.

<뉴스버스>는 윤석열이 배후로 의심 받은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 보도한 곳이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웅에게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의혹을 거론한 인물들을 대신 고발하도록 했다는 의혹이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치 권력의 부패와 진실을 보도하려고 권력자의 횡포와 탄압에 맞서 용기 있게 취재하고 보도를 이어가는 기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정부의 언론 탄압은 방송 장악 시도로도 이어지고 있다. YTN 민영화를 전광석화처럼 추진하더니, KBS에서는 윤석열이 새로 임명한 박민이 사장을

로 취임하자마자 뉴스 진행자(이소정 앵커와 주진우 라디오)가 교체되고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있다. 모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불편해 하던 것들이다.

윤석열 정부가 집요하게 탄압을 벌이는 것은 이 정부의 강점이자 동시에 약점인 “무게중심”(이 용어는 클라우드비츠의 것이다) 때문이다. 즉, 윤석열은 권력자들에게 대한 부패 수사로 인기를 모았지만, 지금 그 자신이 부패 의혹 대상이 됐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그 하나다.)

윤석열의 검찰은 상관을 수사하지 않는다. 이런 위선이 드러나며 정권에 대한 이반도 늘어 왔다.

결국 윤석열의 언론 탄압은 그 자체로 권력 남용 부패 행위이자 잠재적 아킬레스건인 것이다.

성지현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우파는 왜 무슬림의 목숨을 무가치하게 취급하나?

★ 한국노총 지도부의 사회적 대화 복귀는 노동자 배신이다

★ [서평] 소설 《범도》 러시아 혁명에 고무받았던 민족 해방 투사의 내면을 그린다

★ [서평] 《혁명의 지성사》 모든 혁명가에게 유용한 책

한전 적자를 노동자에게 전가 말라

올해 초 한전이 부동산 매각·임직원 임금 반납·인력 감축 등 적자 해소를 위한 자구안을 제출한 데 이어, 11월 8일 추가 자구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고강도 자구안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추가 자구안 내용은 2000명 수준의 대규모 인력 감축, 조직 축소, 부동산 추가 매각, 자회사인 한전KDN과 한전기술의 지분 일부 매각 등이다. 많은 전력 노동자들이 이로 인해 처지가 악화될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전력 노동자들은 한전 적자의 책임이 없다.

한전의 적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천연가스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대폭 오른 탓이 크다.

게다가 민간 기업들에 발전사업을 허용한 전력 산업 민영화는 한전의 적자를 더욱 악화시켰다. 현재 민간 발전회사들은 전체 발전량의 40퍼센트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한전이 발전회사에서 전기를 구매할 때 적용되는 전력 도매 가격은 원료 가격에 비례해 올라간다. 민간 발전회사들은 장기 계약으로 천연가스를 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하고는 한전에 비싸게 판매해 영업이익을 대폭 늘렸다.

SK·GS·포스코 등 주요 민간 LNG 발전사들이 지난해 거둔 영업이익은 1조 8378억 원에 달했다. 올해 2분기 기준 영업이익은 1조 4719억 원인데, 동절기 수요를 감안하면 지난해보다 더 늘 것으로 점쳐진다.

또한 정부는 기업에 막대한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다. 지난해 1분기에 전력 소비 상위 50대 대기업에 준 요금 감면 혜택만 1조 8000억 원



기업 퍼주기와 민영화는 멈추고, 노동자 임금·인력은 늘려라 11월 11일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이상이다.

결국 정부의 정책이 한전의 적자 규모를 더욱 키우고, 민간 발전사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커다란 이득을 얻게 한 것이다.

민자 발전

반면, 가정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해 전기를 사용할수록 비싼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러 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해 노동자 등 서민층의 생계비 고통이 커졌다.

한전이 자회사인 한전KDN과 한전기술의 주식 일부를 민간에 매각해 공

공기관에 민간 자본이 들어오면 인건비 감축 등 공격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지분 매각이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의식해서 부분 매각일 뿐 민영화는 아니라고 말한다.

당장은 적자 벌충을 위해 지분을 매각하(려)는 것이겠지만, 다음에도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추가 지분 매각에 나서지 말란 법이 없다. 이렇게 민간 자본의 지분이 야금야금 확대되다가 향후 어떤 계기가 생기면 완전한 민영화 수순을 밟게 될 수도 있다. 한전산업개발, KT, 포스코가 그런 경우다.

이처럼 한전의 자구안은 인력 감축과 비용 축소 등으로 전력 노동자들을 고

통으로 몰아 넣을 것이다. 또, 이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게 해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전의 적자는 정부와 기업주들이 책임져야 한다. 기업주 등 부유층의 세금을 늘리고,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한전 적자를 보전하고 노동자 등 서민층에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

전력노조와 한전KDN노조, 한전기술노조는 한전의 자구안에 반대 입장을 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긴축 속에서 벌어지는 한전 구조조정 공격을 막아내려면 지금부터 진지하게 투쟁이 조직되어야 한다.

이호성 한전KDN 노동자

윤석열은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말라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정확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2조와 3조의 개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더 넓게 인정하는 게 핵심 취지이다. 이를 통해 취약한 조건에 놓인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강화하고, 정부나 사용자가 노동자(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가압류)을 납부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제어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노란봉투법 통과 전부터 결사 반대를 외치던 정부·여당과 사용자들, 친기업 언론들은 법이 통과되자 수용할 수 없다며 게거품을 문다. 윤석열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

경총은 “산업현장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낳을 것이며, 이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고 방방 뛰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

식은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윤석열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화답했다.

살인적

그러나 정부와 사용자들의 살인적인 손배가압류 ‘폭탄’이야말로 진짜 폭력이다.

1990년대 초부터 정부와 사용자들

은 노동자 투쟁을 보복하거나 또는 앞으로 벌어질 투쟁을 위축시키려고 손배가압류를 이용해 왔다.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의 조사를 보면, 1989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사용자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한 손배가압류가 약 3200억 원에 달한다.

지난 20여 년간 손배가압류에 짓눌리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 노동자(와 그

▶ 15면으로 이어짐

철도

자회사 노동자의 출퇴근 열차 무료 이용(사내 복지) 막는 정부

철도공사의 자회사 노동자들은 역무원, 열차 승무원, 상담사, 환경관리원, 주차관리원 등 철도공사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유사 업무에서 일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회기역에서 일하는 역무원은 정규직, 신이문역에서 일하는 역무원은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공사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자회사라는 이유로 여러 차별을 겪고 있다.

2018년 철도공사는 공사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회사 노동자는 근속 수준이 같은 공사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80퍼센트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합의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동자 대부분이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노동자들이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이라고 외치는 이유다.

최근엔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가 자회사 노동자들의 출퇴근 열차 무료 이용까지 공격하고 나섰다.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일하는 차량사업소, 승무사업소, 역 등으로 열차를 타고 출퇴근한다. 원거리 전보 발령을 받아 대전에서 광명이나 서울역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도 있다.



낙인과 차별 ... “자회사 노동자는 얼마나 더 비참해져야 합니까” 11월 7일 기자회견

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종의 복지 혜택으로 출퇴근 시 70분 이내 권역에서 표를 사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고 있다. 자회사 노동자들도 출퇴근 시 자회사 소속임을 밝히고 이용해 왔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는 자회사 노동자들이 출퇴근 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했다며 100여명을 수사 의뢰했다. 자회사 노동자들을 ‘부정 승차’를 일삼는 잡범인 양 취급

한 것이다.

수사 의뢰 대상이 된 한 노동자는 월 급여 240만여 원 중 출퇴근 교통비로 무려 56만 원을 썼다.

11월 7일(화) 철도 자회사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를 규탄했다.

“얼마나 더 우리 자회사 노동자들이 비참해져야 합니까? 똑같은 철도 종사자이고 일터로 가는 노동자이지만, ...

‘자회사’ 낙인이 찍힌 승무원이 ‘자회사’ 낙인이 찍힌 역무원과 승무원을 부정 승차로 잡는 것이, 당신들이 계속 보고 싶은 모습입니까? 국토부와 철도공사는 지금 당장 이 차별을 중단하고, 동일한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광용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장)

차별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혜택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의 적인 정부와 사측에 맞서 함께 출퇴근 교통권 보장(강화)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회사 노동자들은 정원 대비 턱없이 부족한 인원 때문에 과다한 업무로 고통받고 있다고도 토로했다.

누군가 아파서 병가라도 사용하면 비번인 다른 동료가 대신 그 자리를 채워서 일해야 한다. 심지어 주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공짜 노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실정이다. 노동자들의 근무 조건은 철도와 철도 이용객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이재환

▶ 14면에서 이어짐

가작)는 수십 명에 이른다.

2003년 두산중공업 노동자 배달호 열사는 손배가압류 탄압에 맞서 싸우다 분신했고, 한진중공업 김주의 열사도 크레인 농성을 하다 목숨을 끊었다.

2019년에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 김주중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했다. “해고 기간 55개월,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액 14억 7000만 원, 퇴직금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죽음의 뗏”이나 다름없는 이 손배가압류 문제는 윤석열 집권 이후 다시 떠올랐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8월 대우조선해양(현재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파업에 대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490억 원의 손배소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시급 1만 원 받는 하청 노동자 5명에게 말이다.

이 손배 청구에는 하청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사용자가 아닌’ 원청 기업을 상대로 파업을 하고 손해를 끼친 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사측의 주장까지 포함돼 있다.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문제가 노동자들에게 절실한 까닭이다.

그래서 양대 노총을 비롯해 진보적 노동·정치·시민 단체들은 윤석열에게 거부권 행사 말고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계기로 한화오션은 오직 노동자 탄압이 목적인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성 확대에서 진전이 있지만, 손배가압류 공격을 온전히 막는 법은 아니다. 특히 여야 협상 과정에서 노조나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같은 핵심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손배 관련 조항은 이미 존재하는 대법원 판례와 인권기구들의 권고를 최소한의 수준에서 입법화한 정도이다.

이조차도 정부와 여당, 사용자들이 길길이 날뛰는 진정한 이유는 행여라도 그런 법적 권리 확대가 노동자 투쟁에 자극제가 될까 봐서다.

그간 사용자들은 간접고용·특수고용을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하고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해 왔는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합법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더 쉽게 쟁의에 나설 수 있다.

따라서 저들의 거부권 행사 운운은 손배가압류라는 무기를 계속 휘두르겠다는 것이고, 노동자들더러 열악한 노동조건을 계속감내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간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이 법의 입법을 위해 의회 협상과 상층 압력 넣기에 의존했고 만만찮은 대중 투쟁 건설은 소홀히 했다. 그러나 우파는 양보한 적이 없고 이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촉구하고 있다.

개혁은 흔히 지배자들이 더 많은 것을 잃지 않으려면 이것이라도 양보해야 한다고 여길 때 쟁취할 수 있다.

윤석열이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당장 물러나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다.

김승주



가자 지구 병원들을 고의로 공격하는 이스라엘

찰리 김버

가자 지구 공격의 최근 국면에서 이스라엘은 병원들을 타격하고 있다. 11월 11일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 최대 의료복합시설인 알시파 병원의 정문에 도달했다.

이스라엘의 맹폭격이 쏟아지는 가운데 알시파 병원에는 수많은 부상자와 피란민이 갇혀 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포위된 병원 안에 있는 병원장 무함마드 아부 살미야가 11일 알자지라 뉴스에 전한 말이다. 전기도 끊기고 연료도 동이 나자 수술들이 보류됐다.

살미야는 이스라엘군이 알시파 병원 건물을 고의로 공격하고 있으며, 병원 단지 내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군 저격수에게 공격받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진의 한 명은 인큐베이터로 가서 그 안에 있는 아기를 도우려다가 사살됐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의 아기와 집중치료실에서 일하는 한 청년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재 알시파 병원 안에 있는 가자 지구 보건부차관 유세프 아부 알리쉬 박사는 병원 내 발전기가 모두 멈췄고 전력 공급이 완전히 끊겼다고 말했다. "인큐베이터에 있는 신생아 39명이 죽음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병원 바로 근처에서도 맹렬한 총성이 들립니다. 바로 몇 분 전에도 집중치료실에 박격포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사망이, 바닥이 온통 피투성이인데 닦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시파 병원이 하마스 지휘부의 은신처 구실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알시파 병원장은 이런 비방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하마스도 이스라엘의 주장을 부인했다.

또 다른 곳에서도 이스라엘군 탱크가 가자 지구 최대 보건 시설을 포위하고 있다. 가자 북부의 알나스르 병원과 알란티시 소아병원의 원장인 무스타파 알카흘루트는 CNN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완전히 포위돼 있습니다. 떠날 수도 없어요."

"전기도 없고, 환자들에 공급할 산소도 없습니다. 의약품도 물도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서안 지구에서 이스라엘에 협력하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보건부장관 마이 알카일라조차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최대 병원을 백린탄으로 폭격했다고 규탄했다.

알카일라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백린탄은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입니다. 알시파 병원을 백린탄으로 폭격한 이스라엘에 책임을 묻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알카일라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서 "인종 학살"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자 지구 병원의 환자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유엔, 국제 사회에 그 책임이 있다고 규탄합니다."

출처 Charlie Kimber, 'Israel targets hospitals in Gaza Strip' (2023. 11. 11) / 번역 김준호



사진 출처 The Eye Of Palestine

이스라엘의 고의적인 병원 공격으로 신생아들의 생명도 위협받고 있다



11·18 팔레스타인 연대 8차 집회·행진

이스라엘 고의로 4곳 병원 폭격
전범 이스라엘
규탄한다

11월 18일 (토) 14:00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인근
(서울 중구 무교로 32 효령빌딩)

아랍어·한국어 통역 제공 • 문의: 010-7550-2131

후원 계좌: 국민은행 694701-01-227958 (예금주 백은진)

보내 주신 후원금은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개최를 위해 사용됩니다.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토론회 영상

▶ 주요 시사 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57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 팔레스타인에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노동자연대 TV X 도서출판 책갈피



《팔레스타인의 저항》 저자 초청 강연
팔레스타인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팔레스타인의 저항》 저자 초청 강연:
팔레스타인 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온라인 토론회 영상을 채널에서 시청하세요! (11월 15일 공개)